

메시지 4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계시와 체험
(1)

성경: 계 1:1-2, 9-20, 7:9-17

I. 예수님의 증거는 일곱 금등잔대인데, 그것은 본성에 있어서 금이고(신성하고), 어둠 속에서 빛나며, 서로가 동일하다—계 1:1-2, 9-20.

- A.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실질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체현이신 아들은 그 영을 통해 표현되시고, 그 영은 교회들로 완전히 실재화되시고 표현되시며, 교회들은 예수님의 증거이다—출 25:31-40, 스펀 4:2-10, 계 1:9-12.
- B. 신성한 사상에 따르면, 금등잔대는 사실상 꽃받침들과 살구꽃들이 있는 살아 있고 자라는 나무이다. 그러므로 등잔대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살아 있는 부활의 금나무로 묘사한다. 이 나무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의해, 우리에게서 자라고, 가지를 벌고, 봉오리를 맺고, 꽃을 피우고, 빛의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본성에 있어서 선하고, 절차에 있어서 의롭고, 표현에 있어서 실재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 실재로서 표현되시도록 한다—출 25:31-35, 엡 5:8-9.
- C. 예수님의 증거, 곧 예수님의 단체적인 표현(행 9:4-5, 고전 12:12)인 금등잔대들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적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고전 12:13, 롬 10:12-13, 애 3:55-56) 예수님의 영(행 16:7)으로 충만하게 되어, 형제들로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함께 참여한 이들(계 1:9-10)로서 예수님의 낙인(갈 6:17)을 지녀야 한다.
- D. 금을 쳐서 대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의 환경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은 등잔대를 쳐서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출 25:31, 골 1:24.
 - 1.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고정하고 그 영의 내적인 일과 바깥 환경에 복종한다면, 모든 환경이 우리가 그분을 아는 기회가 될 것이다—호 6:1-3, 빌 3:10상, 엡 6:20, 창 41:42.
 - 2. 사람이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허비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있는 그분의 다름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분을 더욱더 알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후 4:16-18, 12:7-9, 참조 사 7:14-15, 고후 5:14-15.
 - 3. 문제의 핵심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큰 빛이신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있다. 고난은 우리가 고난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후 1:8-9, 참조 엡 1:17, 눅 1:78-79.
- E. 금등잔대의 비춤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사람의 아들로써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게 한다. 교회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분으로 앎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항상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분은 항상 살아 계시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며,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시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계 1:12-18, 2:1, 딤후 4:22, 히 7:25, 9:24, 민 6:22-27, 신 31:6.
- F. 일곱 금등잔대들의 일곱 등잔이 빛 비추는 것, 곧 불꽃같은 일곱 눈과 빛나는 놋쇠와 같은 발과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지니신 주 예수님께서 등잔대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생활과 교회생활에서 그분의 더 많은 목양, 곧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신화(神化)시키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계 1:14하-15상, 16하, 4:5, 5:6, 눅 1:78-79, 고후 4:6-7, 말 4:2, 잠 4:18, 시 22편 제목, 80:1, 3, 7, 14-19.
 - 1.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여기서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그 영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하는 말씀이다—계 2:7상, 시

- 119:105, 130, 요 6:63, 엡 5:26-27, 아 8:13-14, 사 66:2, 5.
2. 빛 비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주실 때마다,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의 빛이고, 그분의 나타남이 우리의 이상이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유익이다—롬 9:15, 행 9:3-4, 사 50:10-11, 민 6:25-26.
 3.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빛 비춤을 원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단일하게 추구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시 139:23-24, 빌 2:12-16, 대하 12:14, 16:12, 34:1-3, 시 27:8, 73:25, 눅 11:33-36.
 4.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어떤 것도 보류하거나 숨기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한다. 주님께 자신을 닫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데 전문가들이다—고후 3:16, 잠 20:27, 마 7:1-5, 눅 6:36-37, 41-42.
 5.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조망,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완전히 멈춘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극히 단일하고 단순할 수 있다—눅 10:38-42, 요 11:21-28, 사 40:31, 마 5:3, 눅 18:15-17, 사 66:1-2.
 6.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빛과 다투지 말아야 하고, 밖에서 말하는 그 영의 사역자들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행 22:10, 아 5:4-6, 고후 10:3-5, 11:2-3, 민 16:1-7, 33-39, 17:1-8, 참조 출 33:11, 14.
 7.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 빛 속에 살아야 한다—사 2:5, 요일 1:7, 히 9:14, 10:22, 마 5:3, 8, 14, 시 119:105, 계 1:20, 시 36:8-9.

II. 예수님의 증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 곧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몸 전체인데, 이들은 하늘들로 휴거되어 오늘날 우리가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돌봄과 어린양의 목양을 누린다—계 7:9-17, 21:22, 3:12, 엡 1:3, 갈 3:14, 창 12:2, 참조 계 21:3-4, 22:3-5, 사 49:10.

- A. 큰 무리는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어린양의 피로 사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계 7:9상, 5:9, 롬 11:25, 행 15:14, 19, 고전 6:19-20.
- B. “이 사람들은 대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겹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계 7:14.
 1. 여기에서 대환난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역대로 체험한 환난과 박해와 고통을 가리킨다—요 16:33.
 2. 어린양의 피가 우리에게 대한 마귀의 모든 비난에 대응하여 우리가 그를 이기도록 한다(계 12:11).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피로 된 열린 샘(슌 13:1, 요 19:34)이신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넘쳐흐름 아래 잠기어 우리의 모든 죄의 얼룩을 씻을 수 있으며(찬송가 686장, 1절) “새로워진 마음으로 흰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세상과 죄 이겨”(영어 찬송가 1010장, 3절).
 3. 우리의 겹옷을 빼는 것은 어린양의 피로 인한 씻음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나무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영역인 생명의 성으로 들어갈 권리를 우리에게 준다—요일 1:7, 계 22:14.
- C.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있는 이들로 구성된 큰 무리—계 7:9하.
 1.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환난을 이긴 것을 상징하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 환난을 겪었다. 종려나무는 또한 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얻은 만족을 의미하는 하나의 표징이다—계 7:14, 참조 요 12:13, 출 15:27.

2. 하나님의 성전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밤낮 그분을 섬기면서 영원한 장막절이신 그분을 누리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계 7:15상, 3:12, 레 23:20, 느 8:15, 시 92:12-13, 요 7:2, 37-38, 롬 1:9, 골 2:19.
 3. 오늘날 시간 안에서 우리의 봉사는 영원 안에서 우리의 봉사를 위한 준비이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매일 분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고 우리에게서 나가실 때 그것이 봉사이다—마 25:19-23, 요 7:37-39.
- D.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계 7:16상.
1.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아직 만족되지 않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온 사람마다 만족할 것이고 그분을 만족하게 하는 생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요 6:35.
 2. 우리의 영 안에서 영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요 4:13-14, 23-24.
- E. 내리쬐는 해나 뜨거운 열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계 7:16하.
1.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하나님께서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이다—계 7:15하, 고후 12:9.
 2. 하나님의 덮음 아래에는 한 종류의 생명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시 36:7-9, 엡 6:17, 시 91:1, 17:8, 57:1, 룻 2:12, 골 3:3.
 3. 여호와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덮으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광풍을 피하는 곳과 폭우를 가리는 곳 같고 마른 땅의 냇물 같으며 황무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람이시다—사 32:1-2.
- F.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다—계 7:17상.
1. 목양은 먹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목양 아래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시 23:1.
 2. 우리는 결코 자신을 개선할 수 없고, 항상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그분의 체험을 어린 양들에게 먹이신다—시 23:2-6, 계 22:1.
- G.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계 7:17하.
1. 눈물은 이 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기고 그분의 책에 기록된다—히 5:7, 행 20:19, 31, 시 56:8, 참조 말 3:16.
 2. 어린양께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눈물은 씻어진다—렘 9:1, 2:13, 참조 15:16, 애 3:21-25, 55-56.
 3. 슬픔의 날과 슬픔의 일들이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자. 세상은 지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마시는 축복을 받았다—요 4:14하.